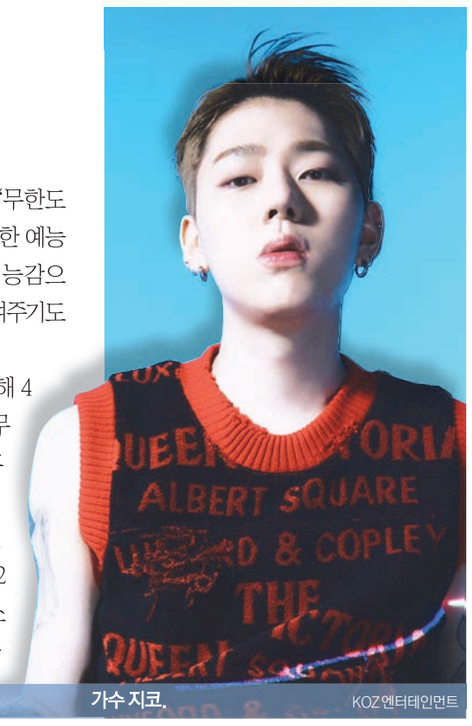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음원 강자' 지코, 소집해제 후 힙하게 가요계 컴백


가수 지코. KOZ엔터테인먼트

2011년 4월 15일 싱글 앨범 'Do U Wanna B?'로 데뷔한 블락비는 2004년 당시 최고의 히트곡 '친구여'를 불러 스타덤에 오른 조PD가 프로듀싱한 힙합 아이돌 그룹이다.

원래 블락비는 지코, 박경, 유권, 한해, 송민호 5인 체제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한해와 송민호가 개인 사정으로 탈퇴하고 이후 태일, 비범, 재효, 피오가 합류해 7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미니앨범 3집에 수록된 곡 'Very Good'으로 10월 13일 SBS 인기가요에서 지상파 1위를 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미니앨범 'HER'로 엠넷 '엠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멤버 중 지코(본명 우지호)는 1992년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예명은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 친구들이 본명 '지호'를 '지코'라고 부르면서 시작됐다. 지호(智皓)의 일본 한자음은 '치코우'(ちこう)로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으로 적으면 '지코'가 된다.


빌딩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971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중학생 때 미술 관련 직업을 갖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 중 그림을 그리다 지루함을 느껴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 미술보다는 음악을 듣는게 더 즐거워 진로를 바꿨다. 언더그라운드 힙합 아티스트 버벌진트, 슈프림팀, 이센스 등의 음악을 들으며 꿈을 키웠다.

이후 지코는 16살 때부터 200개가 넘는 믹스테이프를 발매했으며 송민호(현 위너 멤버)와 믹스테이프를 제작했다. 또한 같은 블락비 멤버로 활동 중인 박경과 랩 듀오 하모닉스를 결성해 '낙서'라는 예명으로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다.

현재는 블락비의 리더이자 메인래퍼를 맡으며 솔로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쾌한 광기, 원조 비글돌이라는 콘셉트와 수준급의 랩과 춤 실력으로 인기를 얻었다. 어려운 안무도 잘 소화해 실력자로 통한다.

또한 그룹 대부분의 노래를 작사·작곡·프로듀싱 하는데 블락비가 데뷔할 당시 회사 내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모두 떠나 어쩔 수 없이 지코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이후 그룹 작업 뿐만 아니라 아이유, 송민호 등 실력 있는 뮤지션과도 함께 작업했다.

작사·작곡할 때 많은 독서로 영감을 얻는다고 밝힌 지코의 곡은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것만 200여곡에 이르며 고액 저작권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도 등록돼 있다.

지코는 2014년에는 '터프쿠키'라는 앨범으로 솔로 데뷔해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2015년에는 엠넷 '쇼미더머니4'의 프로듀서로 출연해 '거북선' '오키도키'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더욱 알렸으며 그해 'Boys and girls'로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크러쉬와 딘이 함께 참여한 곡 '버뮤다 트라이앵글'과 아이유와 함께 작업한 노래인 '소울메이트'가 각각 음악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2020년에는 데뷔 이후 가장 손꼽히는 히트곡이라고 불리는 '아무 노래'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휩쓸었다.

예능에서도 재능을 드러냈다. '무한도전' '런닝맨' '놀면 뭐하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남다른 예능감으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2020년 7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올해 4월 소집해제했다.

지코가 2020년 7월 미니 3집 '랜덤 박스(RANDOM BOX)' 이후 2년 만에 미니앨범 4집 '그로운 애스 키드(Grown Ass Kid)'를 발매하며 27일 컴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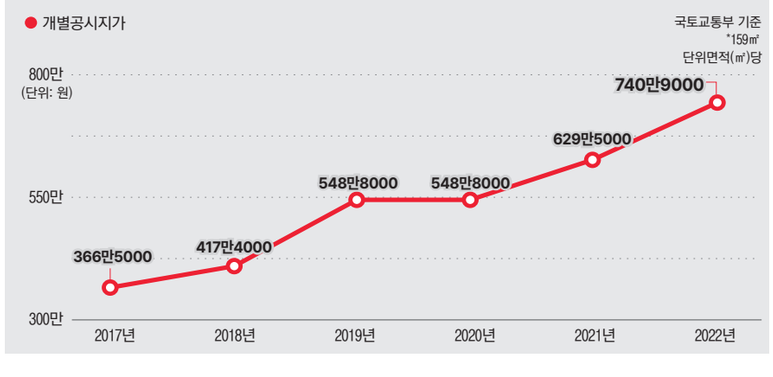
'그로운 애스 키드(Grown Ass Kid)'는 여전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 때 더욱 빛나는 취향과 열정, 에너지로 긴 공백기를 뛰어넘어 다시금 아티스트로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유를 함축한 앨범이다.

8월6, 7일 'Haus of Wonder-고양'에서, 9월17, 18일에는 'HIPHOPPLAYA FESTIVAL 2022'에서 공연할 예정으로 활약이 주목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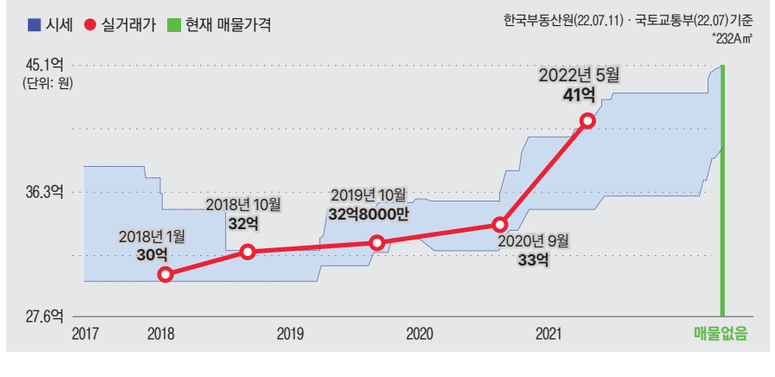
단독주택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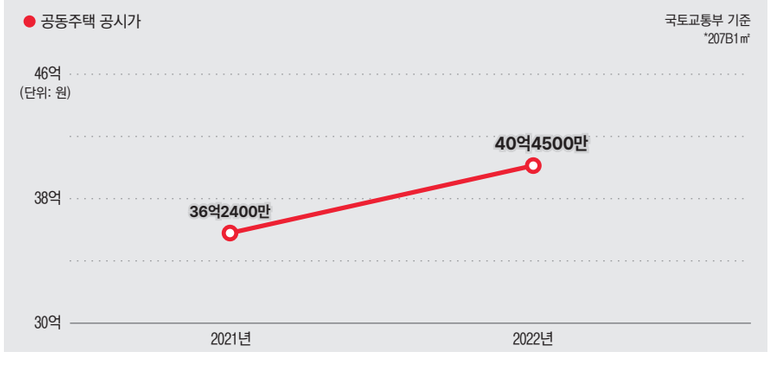
갤러리아포레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



김성근 현)日 프로야구소프트뱅크 감독 고문



김성근 일본 프로야구팀 소프트뱅크 감독 고문은 학창시절 야구를 시작해 1959년 재일동포학생야구단 소속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듬해인 1960년 동아대에 입학했으나 적응 문제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사회인야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중 재일교포 선배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실업야구팀인 교통부에 입단했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돼 준우승에 공헌했다. 이후 기업은행 야구단에서 활약했으나 부상으로 은퇴하고 고등학교 야구부와 실업야구 지도자로 지냈다. 김 고문은 프로야구 출범 후 OB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쌍방울 레이더스, LG 트윈스,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등에서 감독을 맡아 강팀으로 이끌었다. 그의 별명인 '야신'은 2002년 LG 트윈스 감독 때에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삼성 라이온즈 김응룡 감독이 마치 야구의 신과 대결한 것 같다고 한데서 유래됐다.



김종대 현)에어코리아 대표이사



김종대 에어코리아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인 1980년대 초에는 수출물자와 건설인력의 해외 송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었다.

그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 운송·물류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다. 특히 항공산업 등 운송업계의 발전을 예상하고 항공사인 한진그룹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김 대표는 대한항공에서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부지점장과 김포여객서비스 지점장,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인천여객서비스지점장, 여객운송총괄 전무 등을 지냈다.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재임 때 고객들에게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로 타 항공사의 운항관리와 대한항공 여객 운송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에어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서기석 전)헌법재판소 재판관



서기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다. 대표적으로는 통진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관련 심판에서 각각 찬성과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판사 시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다 파면당한 뒤 자살한 전직 경찰관에게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국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서 전 재판관은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해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또한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으로 집필하는 등 일본법 전문가로도 불린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오산시-LH,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속 추진 논의

경기도 오산시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2지구 및 동부대로 연속화공사 공기 단축'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장 및 본사 관계자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 상정된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심의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및 화성~오산~평택을 연결하는 서부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우회도로 공사 재개와 초평동 국지도 82호선 교차로 및 남부대로 교차로 공사 착수를 건의했다. 이밖에 △서부우회도로 가장 교차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미개통 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신호대기 없이 U턴 후 도심방향 진입 가능)


오산시청. 오산시

△잠정 중단된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계도로 설계용역 재개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구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을 반복하지 않도록 원동고가차도(향후 추진) 이후의 2단계 구간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교통문제는 경찰서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LH는 "세교지구 터미널 부지 등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매각 지연된 장기 미매각 토지에 대한 리폼 용역을 7월 착수했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개발취지와 지역여건 변화 등 미매각 원인을 분석해 토지 실수요 용도를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LH와 긴밀히 협력해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만성 주차난 '숨통'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는 신안초등학교 부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3월 신안초등학교 부근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주민, 상인 대표와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 10월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번에 완료한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한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준공식에서 "민선 8기도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수저류시설과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신안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진주시